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갈렙의 신앙

(여호수아 14:6-15)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갈렙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던진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주변의 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희을 겪고 지나가는 위대한 인물로 인해 그 옆에 있던 이들이 그 그늘에 묻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거장 앞에 서 있던 갈렙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갈렙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씌어진 성경도 없고 그에 대한 기사도 여호수아서에 세 번, 그것도 매우 짧게 나타나고 그 밖의 책에 몇 차례 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를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시 여호수아 장군 옆에서 그와 더불어 항상 전쟁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창 15:18-21).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를 조상 중에 누가 유대인의 노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버지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뚜렷한 역사적식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처음으로 갈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을 선발할 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지 2년이 되어 아직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고 당시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처음부터 헤브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민 13:21-22). 유대인들에게 헤브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곳은 가나안 땅 끝에 붙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 곳에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의 무덤이 있고 요셉도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고 한 곳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혼이 깃든 그 땅을 갈렙은 보기 원했고 상속받기 원했습니다.

헤브론에 대한 정탐꾼들의 견해는 갈렙과 달랐습니다.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그 땅은 참으로 좋은 곳이지만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민 13:27-33). 이 보고는 물론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본 그 백성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나 자손은 네피림의 후예들로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네피림이란 거인족으로 영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석은 백성들은 다수의 보고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앙을 저주하시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정복된 가나안 땅은 그 후손들에 의해 분배되었습니다. 갈렙의 깊은 심층에는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정탐 보고를 마친 후 모세에게 헤브론을 포함한 그 언덕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고 모세는 이에 동의했습니다(수 14:9). 이제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 되고 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지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7년간에 걸쳐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갈렙이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2. 온전한 믿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특성 중 하나는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람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는 방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깊이가 없다거나 문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단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Athanasius는 그의 전 생애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M. Luther는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진리를 깨달은 후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 길선주 목사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던진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주변의 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열 명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보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거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변 환경과 여건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힘을 계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다른 열 명은 두려워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승리자처럼 보고했습니다. 거인만 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작게 보였지만 크신 하나님을 본 이들에게는 거민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됩니다. 갈렙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므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2006 열린바자

21일(목)~22일(금) 서울교회에서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가 금 주 중에 열린다. 우리 교회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바친 물질을 가지고 성도와 이웃이 한자리에 어울리는 바자를 열어왔다. 바자수익금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여 위로하는 한편 교회당 헌당을 하는 등 주님의 뜻을 널리 펴는 곳에 사용되었다.

이번 바자의 수익금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와

이 땅의 소외된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고 재활 시키는 '사랑의 집' 건립에 사용하게 된다.

특히 농어촌교회를 통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 등의 구매는 미자립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하실 물건이나 혹은 마늘, 고춧가루, 쌀 등 농수산품을 이번 바자를 통해 구입하면 서로에게 덕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바자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현상이 되도록 기도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1회 총회

9월18일(월) ~ 22일(금)까지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 재현의 등 중요 사안 다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1회 총회가 9월18일(월)부터 22일(금)일까지 "교회에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민족을 깨우는 우리 교회(사51:17, 롬13:11)"를 주제로 명성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지난 90회 총회에서 진행부의 실수로 법 적용을 잘못해 부결된 '새 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의 재 현의를 비롯한 몇 가지 중요 사안이 다뤄진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교회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는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이 반드시 통과되

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같은 기도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교회에서는 이종운 목사 와 김광신 장로 오정수 장로가 총대로 참석한다.

한편, 매년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기위한 총회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120여개의 미자립교회를 돕고 있는 우리교회는 이번 총회 때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모범 교회'로 상을 받는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제6회 화요정오음악회

10월10일(화) 정오 본당에서

10월 10일(화) 정오	피아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concert for Piano and Organ) - 김현주(피아노), 이정욱(오르간,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0월 17일(화) 정오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concert for Cello and Organ) - 김윤영(첼로), 이정희(오르간, 대치동교회 오르가니스트)
10월 24일(화) 정오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concert for Flute and Organ) - 김은선(플루트), 박소인(오르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10월 21일(화) 정오	오르간 듀오 연주회(Organ Duo concert) - 강혜미, 이성심(오르간,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 7일(화) 정오	클래식 기타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concert for Guitar and Organ) - 장승호(기타), 오자경(오르간,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 14일(화) 정오	트럼펫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concert for Trumpet and Organ) - 박상미(트럼펫), 이은주(오르간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2006 성경암송대회임박

10월22일(주일) 예선 10월27일(금) 본선
디모데전서 전장으로

2006년 성경암송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년 성경암송대회 범위는 디모데 전서 전장으로 예선은 10월22일(주일) 각 교회학교 별로 갖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은 10월27일(금)에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 경쟁을 하게 된다.

9월 성경통독자 시상

- <3독> : 최위춘 집사(6교구)
- <2독> : 윤복순 집사(4교구) 김민철 집사(6교구)
김현주 권사(8교구) 송옥혜 권사(9교구)
김희정 집사(11교구) 이완형 장로(10교구)
이점숙 권사(10교구)
- <1독> : 박상희 집사(1교구) 김숙자 성도(4교구)
강희자 권사(8교구) 김인숙 권사(8교구)
송인순 권사(8교구) 김안희 성도(10교구)
김숙자 권사(12교구)

- 여리고 -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가는 1번 고속도로를 따라 한 시간 남짓 달리다보면,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황량한 유대 광야가 나타난다. 광야의 한 가운데 자리한 시가지 중앙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푸른 오아시스, 여리고(Jericho)가 위치하고 있다.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짙푸른 나뭇가지들이 무성하다 하여 성경에서는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신 34:4, 대하 28:15)으로 부르기도 했다.

여리고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즉 기원전 8000년 중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각종 과실수가 나고 물과 샘이 풍부했던 여리고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형태의 주거지였으며, 비옥하고 풍요로운 성읍이었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사막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따라 수많은 꽃이 피어나 도시 전체가 향수 향아리에 담겨 있는 듯 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여리고는 기쁨진 토질 덕분에 오늘날에도 열대야자나무숲과 거대한 바나나농원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원전 3000년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점령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이며, 후에 베냐민 족속의 소유지가 되었다. 고대 클레오파트라와 헤롯왕의 휴양지로도 유명한 여리고는 말씀대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이 얻은 첫 가나안 땅이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이중으로 수축되어 있고, 높은 언덕 위에 다시 깎아지른 듯 성벽을 쌓아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여리고성의 발굴에 참가한 후대의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이 진동에 의한 공명으로 무너졌음을 증명해 내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오늘날 요새화된 성처럼 무너지지 않는 영적 전쟁의 대상들을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 되었다.

순례팀은 이밖에도 여리고 주변의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요단 강,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회심과 구원을 기념하는 장소, 이슬이슬한 바위산 위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신 시험산, 유대광야 한복판에 위치한 사마리아인의 여관 등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나소정(편집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 번역의 원리

순례자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 91회 총회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재번역안 채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3주에 걸쳐 다음과 같이 기획 연재 한다.

- 1. 9월 3일 : 새 번역안 채택 추진 현황
- 김민철 (편집부)
- 2. 9월 10일 :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해
- 이형기 목사(장신대 교수)
- 3. 9월 17일 :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번역의 원리- 조병수 목사(합신대 교수)



조병수 목사
(합신대 교수)

“오류는 고쳐야 한다

틀린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오류는 고쳐야 한다. 틀린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공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들어있다. 따라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 번역위원회는 그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가 드러난다.

첫째, 어투를 바로 잡았다. 주기도문에서 호칭 “아버지여”는 친밀감을 더하기 위해서 “아버지”로, “나라이”는 현대어법에 맞추어 “나라가”로, “입하옵시며”는 하나님이 동작의 주체인 것으로 여겨 “오게 하시며”로, “오늘날”은 하루를 가리키는 “오늘”로, “주옵시고”는 평이하게 “주시고”로 바꾸었다.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는 원문에 맞게 “그의”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확실히 말하기 위하여 “그는”으로 바꾸었다. “잉태하사”는 능동형으로서 마치 예수께서 누구를 잉태하신 것 같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수동형인 “잉태되어”로 바꾸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누구를 낳아준 것 같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의미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로 바꾸었다. 또한 “고난을 받으사”는 “고난을 받아”로, “장사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장사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장사된 지”로, “살아나시며”는 “살아나셨으며”로, “오르사”는 “오르시어”로, “저리로서”는 현대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부터”로 번역하였다.

둘째, 용어를 바로 잡았다. 주기도문에서 “사하다”는 “용서하다”로 바꾸었는데, “용서하다”는 “사하다”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대한 범실이나 하나님에 대한 범실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에 들다”는 더욱 분명하게 “시험에 빠지다”로 번역하였다. “권세”는 “권능”이라고 고쳤다. 그리스어 원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도보다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번역하였고, “산자”는 더욱 분명하게 “살아있는 자”로 바꾸었다. “교회”는 사회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공교회”라고 번역함으로써 이것이 일반사회의 모임과는 다른 보편적 교회임을 분명히 하였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교제”라는 말로 바꾸어 성도의 관계가 물리적인 관계 뿐 아니라 영적인 관계도 의미하는 포괄적인 것임을 나타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번역한 것을 새 번역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번역하였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간단히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번역하였다.

셋째, 번역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 주기도문에서 원문을 따르면 이름, 나라, 뜻 앞에 인칭대명사 단수 소유격 “당신의”가 덧붙여있다. 그래서 본래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으로 번역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말의 정서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를 모두 “아버지의”로 대체하였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에 빠진 “아버지”를 보충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로 완성하였다.

넷째, 간략화를 시도하였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단락은 원문을 따라 “이루다” 동사를 한 번만 사용하였다. “다만 (약에서)”은 구태여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맥상 의미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여 번역을 생략하였다. 또한 “대개”를 뺐다. 이 말을 살릴 경우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은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리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학적인 수정을 가했다. 주기도문에서 “죄 지은 자”와 “죄”로 번역한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의미상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범실과 사람이 하나님

께 지은 범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 번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과오에 대하여는 “잘못”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는 “죄”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새 번역에도 아직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실

정
에
서
이
정
도
만
바
로
잡
아

**새 번역은
국어학적인 오류를 바로 잡는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신학적인 풍요를 크게 하는 ...
영적으로 풍요한
새 번역의 혜택을...**

도 매우 잘 된 것이라고 믿는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새 번역은 국어학적인 오류를 바로 잡는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신학적인 풍요를 크게 하는 공헌을 하였기 때문이다. 회복자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새 번역에 나타난 신학적인 의미를 신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한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큰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오랫동안 기존번역에 젖어 있어서 새 번역을 암송하는 데 적지 않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영적으로 풍요한 새 번역의 혜택을 빠른 시간 안에 누리려면 새 번역을 수용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 번역을 암송하는 모임(대회)을 만들거나, 새 번역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특별집회(사경회 또는 세미나)를 열거나, 또는 새로 번역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노래로 만들어 보급하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서울교회는 ...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교회!

1.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주일예배를 드리며...

2.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한 촛불기도회 - 광화문에서

3.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장애우를 위한 예배 - 사랑부, 에바다부, 호산나 전문 학교



강남구청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추석선물 전달



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예배



이웃을 위한 열린 교회 - 도서실 (평일 오전10시~오후10시)



Telling Who Jesus Is.
Mark 1:9-15

- Our Lord was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in the Jordan River
- Jesus was tempted forty days in the desert & then told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주일 영어 예배부 - 설교 A. Kinsler 목사



전국 목회자 구국기도대성회 - 서울교회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1부	오전 9시
주 일 예 배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동 정

- 이종윤 목사는 19일(화) 총회에서 총회 주제 해설을 하고 기도 · 사도신경 새 번역 재현의를 한다.
- 박광일 전도사(디아스포라부 지도)는 9월24일(주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국제로잔 청년지도자 캠프에 참석한다.
- 개원 : 3교구 김진영 성도 연세모벨르 성형외과 서초동 T. 3473-7587
- 이사 : 차성채 집사, 이영애 집사(2교구) 역삼동 728-47 T.567-2948
- 주간식당 봉사: 모세교회 (9월17일) 도르카전도회(9월24일)
- 금주의 식사 제공: 문언수 문성수 문영숙 성도 (어머니 이순녀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3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각종 열린프로그램 좋은 열매 맺도록
- Pilgrims' Vision Trip(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토록
- 사학법 개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